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였던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학생 눈높이로 느낀 점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름은 삭제하고 보내드립니다.

보통사람들은 교도소를 생각하면 수감자, 징역기간, 무서운 경비, 고등, 분위기 등 많은 생각들을 한다. 죄를 지은 수감자들을 모아둔 곳이 교도소라면, 성적이 부진하고, 학업상적으로 죄를 지은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곳이 있다. 이곳은 교도소와 달리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온 훌륭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그중 한명인 나 백구()이 느낀 것들을 축약해 글로 남겨려 한다.

방학하기전 나의 시험성적이 나왔다. 나는 그날 내 위치가 아닌 그 아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방학을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1월 1일에 함양의 케이스사관학원에 입소하기 위해 갔다. 그곳의 환경은 참혹 그 자체였다. 폐교안의 2층 침대가 줄줄이 있고, 그사이에 끈으로 엮어 넣어 놓은 빨래들. 게다가 샤워는 단체로 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 선택한 기숙학원이 이곳이었다. 내가 열악한 시설을 보고나서 한림원을 보니 자상 낙원이었다. 그렇게 나는 1/4일에 입소를 했다.

강의실에 모인 나, 친구, 선배님, 후배들은 모두 교도소에 온 분위기에 눌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험을 모두 치른후 강의실로 하연끼리 향하였다. 모두 혼자 앉아있을 때 나는 혼자앉기 싫어 내 현재 룸메이트인 "자수"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앉자"라고 해 같이 앉았다.

그렇게 다음날 서막한 분위기 속에 영어단어 시험, 독해 등 많은 과제들이 쏟아졌다. 구역구역 소화해낸 결과로 1주차 주말시험에서 등을 했다. 그때의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공부하고 싶게 만든다. 1후 1주일간 열심히 권님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지내서 부자연해지고, 단어를 머릿속과 순간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2주가 지나고 나서 서로 친해져 분위기도 좋고 덕분에 공부도 잘 되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하던가? 서로 너무 친해지는 바람에 분위기가 흐려지고, 집중력 또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선생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여기에 온 목적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못한 것을 떠들기 위해 그날밤 나와 자수의 방에 약 7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떠들었다. 선생님은 주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4층까지 올라오셨다. 그날밤 난 다시는 밤에 떠들지 않고 자겠다고 다짐했다.

1주일이 순식간에 더 흘러 마지막 3일이 되었다.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는 4주차에 나는 채워기 위해 함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남은 몇일은 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후회없이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요즘 들어 느낀다. 이제 끝인가 하고 하지만 아직 볼캠프가 있다. 참여 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예절, 습관, 시간개념, 공부의 방식, 나의 허점등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배웠다. 결국 방학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것 같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었다. 농담으로 "어리석은자여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어리석은자 들어가고, 현명한자 입소하라"가 맞는 것 같다.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였던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학생 눈높이로 느낀 점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름은 삭제하고 보내드립니다.

제목: 나의  life.

1월 8일 나는 입학을 하였다. 다른애들처럼 다르게 4일이나 더 늦게 와서 전도를 따라 잡기 어려웠다. 수학 Test, 영어단어, 사자성어, 특히 각 주 과제들은 나에게 너무 벅찼다. 처음에는 울음이 나듯것만 같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난후로 나는 익숙해져 갔다. 그로부터 나는 적응이 되며 일일과제가 나에게 인생이 되었다. 아침에 알람이 안쳐도 6시30분에 눈이 떠진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게 맞는지 잘모르겠다. 집에 간성투를 하지만아야 겠다고 생각해도 미칠수 없이 하게 된다. 수업시간에 집중도 안하고 말이다. 하루하루 퇴화하는 느낌이 가까워 질수록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간다. 느리게 갔는데도 있지만 저번주부터는 시간이 무지 빨리간다. 내가 그만큼 적응을 잘하고 있는것이라고 믿는다. 멘토 선생님들께서도 잘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선생님과 친구의 도움이 컸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해 할때까지 알려주었다. 내가 처음에 왔을때 독해를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점한다고 해서 그냥 다 틀렸다. 처음 몇일은 힘들어서 한번은 울었던 적도 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외운다면 어느새 성적이 올라갈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독해를 못했었는데 사전으로 모르는단어를 찾아면서 열심히 풀다보니 어느새 틀린문제가 줄어들었다. 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차근차근 배웠다 보니 내가 풀수 있게 생겼다. 처음에는 분기도 싫었던 수학이 지금은 이해는 하고 풀 수 있다.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 2~3달 만에 쓰는 사파시는 여기서는 3주만에 다 써버렸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는 거든여 보지도 않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안읽던 책이 재미있어지고, 다이어라도 처음으로 만들어보고. 여기서 처음으로 해보는데 많은것 같다. 여기 와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의 생활태도와 많이 바뀐것 같다. 퇴화하고 집에가서도 6시30분에 일어날수 있을것 같고, 집에서 전대 안하던 공도. 게임만 하던 책상에서 공부할것 같다. 수학 시험을 보고 90점이 넘어서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비록 내가 아직도 영어, 수학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의 실력이 많이 오른것 같다. 저번에 부모님께 편지쓰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더 생각해보니 그때이 내가 정말 부끄럽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곳은 힘들지만 성적이 쑥쑥 오르는 곳이다.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였던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학생 눈높이로 느낀 점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름은 삭제하고 보내드립니다.

중2

< 2주전 나는 이제 없다.>

내가 이곳 기숙 학원에 오기 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계획 없이 무작정 공부하기, 제대로 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지 않고 점수가 오르기만을 희망하기, 자투리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하기,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게 서툴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등이 부족했었다. 오기전, 평소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보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시험대비도 훨씬 전 부터 시작 해 보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지만, 변화되는 듯 하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나에게 확실히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지 약 2주만에 집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인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 할 기미가 생겼다. 아직 완벽하게 해결 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2주 전보다는 다른 나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다. 계획 없고, 나만의 공부법이 없던 것은 매일 학습계획서를 쓰고, 자기주도 시간에 배운 학습일기, 시험플래너, 노트 필기법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해 가고 있고, 자투리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하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했던 것은 쉬는시간과 시간이 남는 대로 정해진 하루 일과를 해 내도록 하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원래 소극적인 성격 탓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는데 단체 생활과 룸메이트와 함께 방을 사용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성격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듯 하다. 처음으로 나 혼자 가족들과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평소에도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은 했지만, 표현도 서툴고, 때론 매우 미워하기도 했었다. 떨어져 있는 동안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곳에서의 특별한 인생법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제는 가족들에게 편하게, 진심을 담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의 편지들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장 뜨겁다고 느꼈다. 남은 2주가 지난 후 퇴소하여 나는 이곳에서 매일 해 왔던 방법을 잊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 가려고 한다. 따로 독해 문제와 영단어를 준비해서 매일 외우고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아침 6시 30분이 아니더라도 알뜰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생활할 것이다. 웬만하면 다니던 학원도 정리하고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를 하고, 매일 3번씩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곳에서의 한달이라는 시간이 후회가 아닌 보람으로 남게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의 꿈인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명하게 대응해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나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가며 나의 꿈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였던 방학 특강 후기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학생 눈높이로 느낀 점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름은 삭제하고 보내드립니다.

< 제목 : 반성과 다짐 >

나는 지금 학원 생활이 즐겁다. 내가 방학때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나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 나의 작년은 정말 부끄럽고 들쭉날쭉한 삶이 많은 한해였다. 날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다르고, 지각은 밥먹듯이 하였다. 학교 규칙을 어겨, 과내불사도 하였고, 반성문도 써보았다. 학교로 집에와서 교복은 벗어서 바다에 가벌려놓고, 아침에 일어나 정리하지 않아 이불이 뭉클 뭉클한 침대 위에 누워 핸드폰을 했다. 공부도 묻지 않았고, 책상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일주일에 개월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도 아니고, 졸다가 교실 밖으로 쫓겨나기만 했다. 자신의 어린시절과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느낀 우리 부모님께서는 좋은 신문기사 자료를 나에게 주시며 중요포인트를 찾아 통그라미치고, 스크랩해서 매달달이 읽어 보라고 하셨지만, 풍만해보이는 내게는 작심삼일 이빨 뿐, 아무 효과가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고민 끝에 바른 공부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나를 기독교학원에 보내셨다. 이렇게 나는 기독교학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곳에 온 첫날은 마치 일주일과 같은 긴 시간이었다. 점점 내려가는 디스크를 느끼고 내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내가 힘들고 지칠때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은 나의 룸메이트이자 지공인 수인이다. 알람을 켜고 먹던 나로서 아침마다 들어오는 기상음악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늘 6시20분에 일어나, 나를 깨워 주는 수인이 덕에 기상시간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쉬는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점심식사후 남은 시간은 수업시간에 끝내지 못한 수업을 이어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쉬는시간은 자투리 시간이 되었고, 점심식사후 시간은 어느새 자습시간이 되어있었다. 처음에는 '퇴도'라는 말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뛰놀지 않았는데, 이왕 왔으니 잘하고 돌아와서 부모님께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마인드를 바꾸니, 공부를 하며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흥미롭고, 즐거웠다. 수업이 즐거우니 학원 생활에 어느새 적응이 되었고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에 모두를 아끼게 되었다. 혼자 웃을 게지 못했던 내가 아침마다 이불도 반듯하게 걸 수 있다는 변화에 놀라웠다. 하나, 둘씩 알아가니 배워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 쭉~ 이어지길 바란다. 이 모든것은 나에게 달렸지만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다. 하지만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꼭 성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매일 같이 하루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내 하루를 평가하는 것. 이 세가지는 앞으로 살아가며 닦아줄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곳에서 얻어가는 것은 인사하는 법, 대인관계, 공부방법 등 여러가지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르게 생활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이다. 작년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루일과는 몰래는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솔직히 2주차가 끝나는 지금이라도 몸이 많이 피곤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제 할 수 없는 욕심이 피곤함을 극복시켜주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준다. 이곳에서 퇴도하고 나니 내 하루의 계획을 전발함에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할 것이다. 분만아니라. 인사를 잘하는 내가 될 것이고, 웃, 이불 정리를 잘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담임선생님께지 감사지 않아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는 내 결과에 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미소를 피울 수 있게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보내는 올해 겨울 방학은 나에게 '가능성'이라는 힘을 찾아주었다.